

건강 칼럼

물이 차고, 찌릿찌릿한 무릎 통증 있다면? '반월상 연골과열' 의심해야

꽃 샌추위가 풀러가고 어 느덧 기온이 올라가는 봄이 찾아옴에 따라 외 부활등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 때 러닝, 등산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경우 무릎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하는 이들은 부상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반월상 연골관은 무릎관절의 뼈와 뼈 사이에서 안쪽과 바깥쪽에 반월 모양으로 생긴 구조물로 체중을 지지하고 무릎으로 오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 역할을 하면서 연골을 보호하는 구조물이다. 이에 관절의 움직임을 매끄럽게 해주는 윤활 작용을 하면서 주변 인대를 도와 무릎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므로 무릎 기능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다만 반월상 연골관이 찢어질 시 '퍽'하고 터지는 소리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무릎이 다친 채로 걸을 수 있으며 운동선수들도 과열이 발생한 후 운동을 지속한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 성 녹

서울비른세상병원 원장

반월상 연골관이 느슨해져 관절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이로 인해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미끄러질 수고 있으며, 무릎이 더 팽팽해지고 부어오르며 무릎관절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반월상 연골관이 파열될 경우,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비수술적 치료는 운동, 재활, 주사치료 등이 있으며, 수술 치료에는 반월상 부분절제술, 연골관 봉합술, 연골관 이식술 등이 있다.

'연골관 부분 절제술'이란 반월상 연골관 파열이 되었을 경우 파열된 조각에 의해 관절 연

골이 긁히거나 손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때, 문제가 되는 파열된 연골관 부분만 제거한 후 그 주변을 정리하여 통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 주는 수술법이다.

아울러 '연골관봉합술'은 찢어진 연골관을 봉합하는 수술로, 파열면의 상태가 깨끗하여 봉합이 가능한 경우 찢어진 연골관의 두 부분을 실이나 기구를 이용하여 봉합해주는 방법이다.

다만 연골관의 심한 파열이나 일관형 연골관의 손상 등으로 인해 남아있는 연골관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연골관 이식술'이 필요하다. '연골관 이식술'

은 심하게 손상된 연골관에 타인의 연골관을 이식하여 정상적인 기능으로 회복시켜주는 수술이다. 수술 전 정확한 측정 후 관절 내시경을 통해 수술이 진행된다.

본 수술은 새로운 연골관을 뼈와 같이 이식하는 만큼 안정적인 유합을 얻을 수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관절을 보전하며 치료할 수 있는 만큼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의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아울러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 절개법으로 진행되는 만큼 회복도 빠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연골관은 외상으로도 발생하지만 오랜 기간 증상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 진단과 관리가 중요하다.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술 후 1~2달은 목발보행, 2달 이후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며, 6~9개월 동안은 무리한 운동은 제한하면서 무릎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무릎에 부담을 주는 행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사설

연명의료결정법 위반 혐의

연명의료로 고통을 겪는 대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지는 취지에서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됐다. 이 법은 지난 2009년 식물인간 상태였던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 이후 제정됐다.

최근 어느 병원이 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2021년 3월, 50대 남성 2명이 술을 먹고 다뤘다. 한 명이 다른 남성의 목을 3분간 졸랐다.

이후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닥쳐 뒤 끝내 숨졌다.

피의자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피의자 측은 피해자 죽음이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면서 반발했다. 병원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부검 감정서가 문제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진 후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 회복이 되었다.

그런데 나흘 뒤 심폐소생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DNR 상태'에 이어 하루 뒤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적혀있다. 피의자 측이 문제를 제기한 건 병원이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부분이다.

심폐소생술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서 이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두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의 이름과 서명만 적혀 있다.

지적 장애인인 둘째 아들은 당시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병원은 둘째 아들의 동의 대신 장애인 증명서만 받은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고 피의자 측은 병원을 연명의료결정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병원 측은 "둘째 아들이 지적 장애인이라 환자 가족 범위 제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병원 법무팀의 자문을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한방직 개발 문제

전주 대한방직 개발 문제가 갈수록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옛 대한방직 터를 2017년 사들인 회사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부채 상황이 심각하다며 사업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시비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방직 터는 23만 제곱미터로 대부분 일반 공업지역이다. 지난해 기준 회사의 재무 상태는 부동산담보신탁이 2천2백억 원 규모로, 전체 부채가 3천3백억 원을 넘어섰다.

회사와 관계사 6곳의 부채가 1조 2천억 원이 넘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만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최대화하고 계획이득 환수, 토지 수용, 개발 방식의 지속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따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가 회사 측과 사전 협상 지침을 마련 중인 가운데 공개된 부채 상황과 관련해 회사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한방직 개발은 찬반 양론이 극명히 갈린다.

한쪽에서는 관광을 중심으로 전복과 전주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특혜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시 한 가운데에 오랫동안 방치된 공장 부지는 석면(1급 발암물질)이 많아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주기도 한다. 반대의 핵심은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토지용도 변경 조건으로 필지 분할 불허, 특정 기간 내에 복합개발 추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등을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시세차익으로 먹튀를 한다는 주장은 원천적으로 발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세상 떠난 캐나다 포크 전설 판 지키는 견공



7일(현지시각)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릴리아의 비올 연합교회에서 '타우러스'라는 이름의 개 한 마리가 시어송라이터 고든 라이트풋의 관 옆에 누워 있다. 라이트풋의 친구 소유인 '타우러스'는 라이트풋과 함께 투어를 하면서 그가 공연을 마칠 때까지 무대 위에서 기다리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60~70년대를 풍미했던 캐나다의 포크 레전드 라이트풋은 지난 1일 향년 8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빅런치' 거리 축제 참여한 런던 시민들



7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축하의 일환으로 열린 '빅런치'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긴 테이블에 앉아 점심을 기다리며 한 음악가의 콘트라베이스 연주를 듣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